

빛고를 밝힌 미디어아트 시민 삶 속에 '꽃' 피워야

광주,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선정 10년
창의벨트 사업·생태계 구축 성과
지맵에 전문인력 확보 시급
문화자산·관광산업 연계 모색해야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 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감콘텐츠전 '물의 삼중주'에서 만난 장승효 작가의 'What is in Harmony'.

올해는 광주가 미디어아트창의도시에 선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미디어아트는 광주의 예술적 전통, 민주와 인권 의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최적의 '빛의 예술'로 인식돼 왔다. <관련기사 18·19면>
지난 10년간 광주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사업, 지맵(GMAP·Gwangju Media Art Platform·센터장 이경호) 건립을 비롯해 하드웨어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향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창·제작 및 유통체계 구축, 예술과 기술·산업이 연계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특히 미디어아트창의도시 플랫폼으로서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는 지맵에 센터장을 제외한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창의도시라는 명성을 무색케 한다. 또한 전시 담당 2명이 전공자가 아닌 데다, 전시팀장을 행정 업무 담당 직원이 맡고 있는 상황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추진 배경과 성과=현재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24개국 25개 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가입된 것은 지난 2014년이었다. 당시 중국 스촨 청두에서 개최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총회의 미디어아트 분과회의에서 결정됐다. 광주는 창의도시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 미디어아트를 매개로 창의성 증진,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 등에서 인정을 받았다.

당시 민간대표로 참여한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 포럼 회장은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과 인문적 자산, 기술적·과학적 자산에 대해 설명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특히 광주비엔날레가 백남준의 미디어아트의 출발과 맞물려 있는 점들을 설득력 있게 어필했다"고 밝혔다.

이후 광주는 2015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2017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특화공간 마련,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지원 조례 등 본격적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2018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특화해 시설물 설치, 미디어아트 영상 표출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됐다. 제1권역 문화전당 권을 시작으로 GMAP 및 금남로 일원, 사직공원, 양림동 일원, 광주송정역권을 완료하기까지 약 6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 2022년 개관한 지맵은 미디어아트 생태계 구축, 순수예술과 첨단기술 융합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미디어아트 창작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관련 전시, 국내 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견인하는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유네스코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알리고 미디어아트와 기술이 융합한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향후 과제와 전망= 그동안 창의도시 토대를 닦는 기간이었다면 향후에는 예술과 기술, 산업과의 연계로 유통 체계 구축 및 광주의 문화자산과 관광산업의 연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는 미디어아트 관련 전문 교육은 물론 산업시설도 취약한 편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자산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허경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미술학 박사)는 "창의도시 시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 산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 간 연계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재한 포럼 회장은 "지맵이 예술은 물론 과학 AI 등을 포함한 산업의 융광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맵의 위상 재정립과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도교육청 학교 급식비 분담 협의 ▶2면
5·18 정신계승위 출범, 늦어도 너무 늦었다 ▶6면
광주FC, 아시아 챔스 16강 노린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알립니다

제 2 의 한 강 을 찾 습 니 다

2025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5일(목)까지 접수

광주일보사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적 고민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2024년 12월 5일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요)
- 보내실 곳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편집국 문화부. 문의 062-220-0624
- 유의사항
 - 팩스나 이메일, 손글씨 원고는 받지 않으며 A4에 출력한 원고를 보내야 합니다.
 - 접수 시 맨 앞장과 뒷장에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를 첨부해주시고.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결봉투에 공모부문을 꼭 명기해 주십시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선작은 2025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光州日報社

"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30% 인하"

尹 "노쇼 예약보증금제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노쇼'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문제를 두고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서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뒷받침하겠다"면서 "인구감소지역은 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을 끝으로 19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배울아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광주석산 고등학교(1990년 졸업), 전남대 법학과(90학번)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장
■ 부산지검·서울중앙지검·서울북부지검·제주지검 검사
■ 광주지검·광주지검 목포지검 검사
■ 통영지정 형사1부장·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 수원지검·인천지검·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검사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검사
■ 창원지검 진주지정장
■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봉준 올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17·18층
대표전화 : 02-2046-1300 | 직통전화 : 02-2046-0674



광주시민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복합문화센터, 송암근린공원

광주시민의 체육여가공간 조성
축구장, 송암근린공원

숲과 함께 배우는 자연생태공간 조성
생태학습원, 송암근린공원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송암근린공원 등 9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90% 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하였으며 초과된 민간개발 수익은 다시 시민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광주광역시 송암근린공원 조성도, 장기 미집행 위원회 심의 및 행정평가, 실시계획변경, 시민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